



종말, 이 세상의 파멸인가? 아니면 회복인가?

장은수

종말은 온다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한다. 즉 이 세상이 갈수록 진보하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종말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종말이 우연히 일어난 핵전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수명이 다해서 종말이 온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1998년)에 두 편의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 에서 그럴싸하게 그린 것처럼 초대형 운석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물론 영화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희생'으로 간신히 운석을 막아 내지만 ...).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 때문이라고 말한다.

종말에 관한 두 가지 견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종말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혹은 기독교인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그저 기쁘게 '정든 지구여! 안녕!'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알 지 못하는, 그 어디인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 세상은, 죄와 악과 사망으로 물들어 있던 낡은 옷을 벗어 버리고, 영광(롬8:21)의 새 옷을 입고 계속 보존되는 것은 아닌지(시102:25-27)? 그 영광의 새 옷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과연 어느 견해가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불탄다고 했는데?

그렇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불탄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무엇이, 왜, 어떻게 불타는 지는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선 그 본문인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자.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3:10,12b,13).”

이 부분만 읽으면 분명 세상이 불타서 없어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언제나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지침을 베드로후서에 적용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말씀(3:10,12b,13)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첫째,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 특히 2장부터 그 거짓 교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¹⁾.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알아보면 위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²⁾

“이 사상의 토대는 극단적인 우주생성의 이원론이었다. 즉 창조된 세계는 악하므로 영의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며 대적하고 있다는 사상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다다를 수 없는 광채 속에서 살며 물질 세계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다. ...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그 자신의 성스러운 섬광(프뉴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지식의 결과로 인간이 죽게 될 때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을 안다면 베드로가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얼씨구나 하며 좋아할 ‘피조된 세상이 멸망한다’는 뜻으로 위의 말씀(3:10,12b,13)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 3:5³⁾을 보면 그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둘째,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은 3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였다. 3:3-4을 보면 “...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 악한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3:9)”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며 오히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3:6-13). 그렇기에 끝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3:14).”

끝으로, 3:15b-16a을 살펴보자. “...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 이 구절은 베드로가 바울의 사도적 지위를 받아들인 증거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사도적 지위’보다는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인용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지적한다. ‘모든 편지’는 아마 바울의 서신들 중 베드로전후서보다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옥중 서신 등을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급한 ‘이런 일’이란 특히 바로 앞에서 언급한 ‘주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후서를 기억했을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창조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19-23)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가 '새 하늘과 새땅'에 대해 바울과 상반되지 않게 말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베드로는 바울처럼 창조계의 회복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의 뜻도 분명해진다.

먼저 체질을 알아보자. 체질은 초등학교(갈4:3,9과 골2:8,20)으로 주로 번역되는 헬라어 '스토이케이아'이다. 스토이케이아⁴⁾는 몇 가지 용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한다. 불도 멸망의 불보다는 연단의 불을 말한다. 다가온 심판의 날을 말하는 말라기 3:1-3에서도 불이 연단의 뜻⁵⁾으로 사용되었다. 정리를 하면 이 창조계의 기본적인 요소에서부터 대격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도가니에 넣고 제련하여 정제된 금을 얻는 것처럼, 죄로 왜곡된 이 세상이 불로 정화되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궁극적으로는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새(new) 하늘과 새(new) 땅을 묘사하는 새(new)의 뜻을 알아보면 또한 이 세상이 갱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후서 3:13과 요한계시록 21:1을 살펴볼 때, 새 우주의 참신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neos(네오스)가 아니라 kainos(카이노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os는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 것이라는 뜻인데 반해 kainos의 뜻은 본성이나 질에 있어서 새롭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의미는 현재의 하늘과 땅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우주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주와 동질이되 영화롭게 갱신된 우주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상 베드로후서 3:10,12b,13을 전체 문맥 속에서 살펴 보았다. 분명하게 그 본문은 이 세상의 파멸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 외 이 세상의 회복을 받아들이는 몇가지 이유.

안토니 A. 후크마는 자신의 책 "개혁주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에서 이 세상의 회복을 받아들이는 몇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⁷⁾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인용한다.

첫째,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바울의 주장에 근거를 둔다. 창조의 세계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창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20-21절). 바울의 요점은 장차 종말에 현재의 창조세계가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패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새 땅과 신자들의 부활한 육체들을 비교해서 설명해보면 명백해진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비록 현재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양자 간에는 엄연히 연속성이 있다. 부활될 대상도 우리이고 주님과 영원토록 있을 대상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인종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추적 방법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새 땅은 현재의 땅과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라 놀랍게도 새롭게 변한 현재의 땅이다.”

셋째, “만일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주를 완전 소멸시키셔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단이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사단이 현재의 우주와 창조질서를 치명적으로 부패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의 창조세계는 치유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으며 하나님도 병든 우주를 어떻게 다루실 수 없어서 결국 완전히 소멸하시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단은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다. 사단의 결정적 패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토록 부패시키려고 힘썼던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사단의 악한 음모의 결과들을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하실 바로 그때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말을 이 세상의 파멸로 생각할까?

성경은 명백하게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를(롬8:21)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왜 그토록 이 세상을 혐오하는 것일까? ‘그거야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라는 단순한 답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 있는 해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만큼 성경공부에 열심인 사람들이 또 있는가! 이 뜨거운 열심이 ‘성경적인 신앙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데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세상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말을 크게 3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⁸⁾ 첫째, 세상은 “창조세계의 총체인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언젠가 재창조하실 창조세계의 총체, 즉 우주 혹은 하늘과 땅이다.”⁹⁾ 둘째, 세상은 “인간실존의 질서를 의미한다. 다소 제한된 의미에서, 세상은 시-공간으로 제한된 삶의 구조, 즉 현재의 인간 실존의 질서를 말한다.”¹⁰⁾ 셋째, 세상은 “복음 선포의 대상인 인류를 의미한다.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 즉 복음선포의 대상인 인류를 의미한다.”¹¹⁾ 세상이라는 뜻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영어 성경도 세상이라는 말을 뜻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World라는 한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피조체인 이 세상은 긍정해야 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 질서로서의 세상은 부정해야 한다.

2) 우리의 원수, 이원론¹²⁾ 때문이다.

이원론의 영향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고,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극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원론은 창조계(물질계)를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창조계에서 탈출하여 영원한 실재의 세계인 정신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코 땅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고, 세계 자체의 완전한 구속과 더불어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을 뜻한다.”¹³⁾ 즉,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다.

3) 창조를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기껏해야 진화론을 공박하기 위해서 창조를 배우지, 창조 그 자체로-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배우지 못했다. “성경의 세계관은 그리스도 및 구원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창조와 더불어 시작한다.”¹⁴⁾는 지적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가 비록 성경의 중심 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창조는 성경 메시지의 기초인 것이다. 사실, 성경적인 창조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죄와 구속에 관한 우리의 모든 이해는 필연적으로 왜곡되고 말 것이다.”¹⁵⁾라는 탁월한 지적은 우리들 신앙의 정곡을 찌른다.

성경적인 창조관을 배우는 것만이 세상에 대한 오해와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시고 여러 번 만족을 표현하셨다. 그 만족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a)”¹⁶⁾는 말씀에서 절정에 이른다. 하나님의 지혜¹⁷⁾가 구현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다. 성경에는 창조계 자체가 악하다는 사상이 발붙일 곳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에서 찾지 않고, 창조계에서 찾는 어떠한 시도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 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다.¹⁸⁾ 종말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썩은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역사상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부활의 시작이다. ...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과 역사를 버리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이미 시작하셨던 구원의 일을 끝내실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19)

1)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싸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 최근에 나온 크레이그 키너가 쓴 'IVP 성경배경주석(신약)'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2)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은 새성경 사전 NEW BIBLE DICTIONARY(기독교문서선교회 역간)에서 인용했다. pp.1252-1255.

3)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벧후3:5).

4) 새성경 사전(기독교문서선교회 역간). pp.1650-1651. 스토이케이아는 크게 세가지 정도의 용례가 있다. 첫째, 히브리서 5:12의 경우에서처럼 '초기 원칙들', 어떤 주제의 'the ABC' 등을 의미한다. 둘째, 물리적인 실체들을 구성하는 지체들을 의미한다. 셋째, AD 2세기 중반부터 천체를 위한 전문학적인 의미로 사용한 증거들이 있다. 넷째, 천사들, 영들을 의미한다.

5) 빔 리트켈크, 미래,미래,미래인(호도애), p.55.

6) 안토니 A. 후크마 지음, 개혁주의 종말론(기독교문서선교회), p.375.

- 7) 같은 책, pp.375-376.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글은 그다지 많지 않다. 출간된 책들을 거의 다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근거는 후크마의 주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 8) 르네 빠딜라 C.Rene Padilla,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대장간), pp.13-22. 도움이 되는 책으로 르네 빠딜라가 쓴 “통전적 선교(나눔사)의 제1장”과 폴 마살이 쓴 “정의로운 정치(IVP)의 제2장(특히 주10.)”을 보라.
- 9) 같은 책, p.259. 마24:21; 요1:9,10; 17:5,24; 행17:24; 롬1:20; 고전4:9; 8:4; 엡1:4; 빌2:15; 히4:3; 9:26을 보라.
- 10) 같은 책, p.259. 마4:8; 요8:23; 12:25; 16:33; 고전7:31; 요일3:17; 딤후6:7을 보라.
- 11) 같은 책, p.259. 마5:14; 13:38; 18:7; 고전1:27,28; 3:22; 벨후2:5; 3:6; 히11:7,38을 보라.
- 12) 리차드 미들튼·브라이언 왈쉬,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IVP), 제6장과 제7장에서 이원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누가복음 17:26-37에 대한 새로운 해석(pp.127-131)을 꼭 보라. 그외 이원론을 설명하는 책은 다음과 같다. 레날드 맥컬라-제람 바즈, 인간:하나님의 형상(IVP), 특히 제2장을 보라. 알버트 윌터스, 창조타락·구속(IVP), 원제목은 창조계의 회복(Creation Regained)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성경적 세계관 자료집.
- 13) 조지 E.레드, 신약의 중심사상(새순출판사), p.139.
- 14) 리차드 미들튼·브라이언 왈쉬,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IVP), p.50.
- 15) 같은 책, p.51.
- 16) 같은 책, p.53. 6)번 주에 나온 설명을 인용한다.“창세기1:4, 10, 12, 18, 21, 25, 31을 보라. 창조된 세계의 본질적인 훌륭함에 대한 이 명료한 단언은, 지금까지 연구된 세계의 기원에 관한 모든 설화들 중에서 비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모든 창조 설화들은, 그것이 부족이나 국가의 신화이든지, 아니면 세계의 기원에 관한 현대 철학적인 경향에 부응한 사상가들의 발언이든지, 그것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약이 어떤 형태로든지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마련이다...”
- 17)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말씀은 다음과 같다. 잠3:19-20; 8:22-31; 욥28:25-27; 시 104:24; 렘10:12-13.
- 18)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성경의 시작(창3:8)과 끝(계22:20)을 보라. ‘하나님의 오심’을 잘 설명하는 책으로는 다음 책을 권한다. 조지 비슬라-머리,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The Coming of God, 여수튼).
- 19) 조지 E.레드, 그리스도와 역사(새순출판사), p.80-81.